

시설채소의 세균병 방제는 이렇게

한 유 경 원예특작환경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 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고온기가 되면 세균성 병해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일단 발병이 되면 방제가 불가능하므로 병 발병 후 '치료'보다는 '예방'위주의 관리를 해야 한다.

풋마름병

고온기(28~30℃)에 토마토, 고추 등 가짓과에 주로 발생된다. 발병된 포기에서는 뿌리 가까운 부위의 줄기를 잘라보면 도관부가 갈변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자른 부위를 물에 담가보면 하얀색의 세균점액이 흘러나오는 게 특징이다. 고온성 병이므로 근권의 온도를 낮게 관리해 준다.

궤양병

24~28℃에서 토마토, 고추에 발병한다. 작물이 성숙되면서 세균감염은 더욱 진전되어 잎이 마르고, 노란색으로 변하며 과실에 백화현상이 일어난다. 또한 과실은 줄기에 매달려 있지 못하고 쏟아져 내린다. 궤양병 역시 뿌리 가까운 부위의 줄기를 잘라보면 도관부가 갈변되어 있다.

수박 과일썩음병

중자전염성 병으로, 최근 육묘단계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되고 있다. 감염된 어린 모종으로부터 전염되어 과실의 성숙기에 과피에 전형적인 병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잎에 수침상의 반점 증상이 잎맥을 타고 불규칙적으로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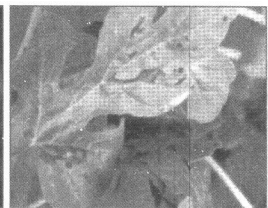
고추 세균성점무늬병

잎에 회갈색의 점무늬 증상이 나타나며 그 주위로 황색의 테두리가 형성된다. 시설재배에서는 3~5월 사이에 환기가 불항하거나 다습한 상태의 하우스에서 주로 발생하고 노지재배에서는 강우가 많아 습기가 많은 날이 계속될 때 자주 발생한다.

감염된 식물체는 조기에 제거하고 환기를 철저히 해 지나치게 습하지 않도록 한다. 손지르기는 되도록 이슬이 많은 오전 시간을 피해 작업한다. 작업도구는 소독 후 사용한다. 고추 세균성점무늬병 외에는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약제는 없으나 외국에서는 가스란, 아그리마이신 혹은 농용신수화제 등을 이용해 방제를 하고 있다. ㉔



▲ 토마토 궤양병



▲ 수박 과일썩음병

〈출처 : 농촌진흥청 녹색농업기술 2011년 5월호〉